



2023.08.14.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5호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75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8월 14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CONTENTS

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06
2. 미래대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행 과정	09
3.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결과 및 분석	13
4. 정책적 시사점	19
5. 결론 및 미래대화 후기	22
부록: 미래대화 속의자료 및 사전질문	24

○ 지역주민과 미래대화 프로젝트 추진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선호미래연구'를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로 확장하고,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 '22년에는 강원, 경북, 대전, 전북, 전남,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지역주민 120명을 만나 미래대화, '23년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
- 기존의 전국단위 미래인식조사를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구체적 미래상 파악에 중점
-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특화된 미래비전을 발굴,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채로운 퍼즐의 조합이자 지역주민의 참여로 창조됨을 부각
- 미래학이나 미래연구의 경험이 없어도 일반 시민들은 다양하고 균형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바라는 미래사회를 제시할 수 있음
- 이들이 미래대화에 쏟아내는 말들에서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도 있지만 다가올 미래사회의 문제들도 많아 전문가 그룹이나 정책그룹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새로운 성장과 대안 도출에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이며 이를 해결할 경우 시민사회의 연대감이 강해질 수 있음

○ 부산시민들이 경고한 '붕괴의 미래'에 적극적 대응

- 시민 참여자들은 가장 가능한 미래로 '붕괴사회'를 예상
- 이들이 지적한 붕괴의 사회구조적 이유를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함
- 예를 들면, 전통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안감(돌봄 공백 등)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
- 수질 오염, 핵발전소 사고, 다양한 환경파괴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창궐, 기후위기로 비롯되는 해수면 상승 등은 부산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래 사건들임
-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견고한 미래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회복력과 자연과의 조화, 건강한 시민들의 삶이 지속하는 환경을 창조해야 함
- 원도심 노후 주택 증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도심의 녹지공간 부족 등도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요인이며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

○ '보존사회'라는 선호미래에 다가가는 정책의 개발

- 참여자들이 가장 바라는 미래는 '보존사회'로 지속가능, 다양한 성장에 주목해야 함
- 부산은 인구감소가 가장 걱정이지만 다양한 지역별/공동체별로 경쟁우위를 따져보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내놓는다면 꼭 목표 달성은 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체 연대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
- 미래대화를 상시적으로 정례화해서 개최한다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가나 전문가가 생각지 못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음

-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매진한 시민들이 이제는 환경보존, 문화예술, 정신건강, 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주목할 필요
- 시민들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다양한 골목길에서 편하게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이웃과 담소도 나누는 문화도 원함
-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정책이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아파트 위주의 도시보다 작은 주택들이 모인 주거문화가 형성되면 전국의 청년들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경청해야 함

○ 전국에서 국회 주도의 미래대화 추진

- 국회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국민과 미래대화 시행 제안
- 국회가 소모적 정쟁의 장소가 아니라 중장기적 미래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
- 국회는 수많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어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미래대화에 나선다면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현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교환, 공감을 불러일으켜 건설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음
- 미래의 걱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현장의 관점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미래 기회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평상시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시민들(청년층)이 목소리를 내며 지역의 비전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음

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

○ 지역주민과 미래대화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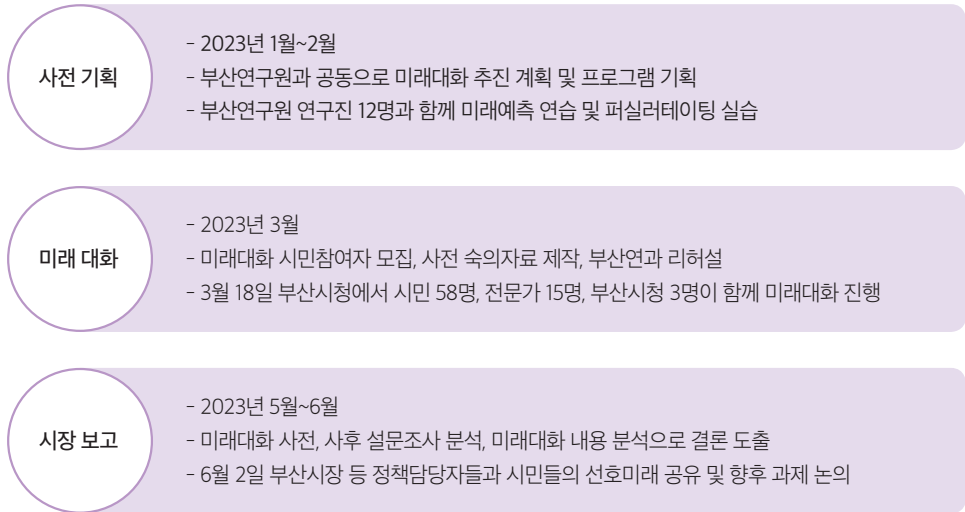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선호미래연구’를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로 확장하고,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 ‘미래대화’(Dialogues on Futures)는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들이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지, 어떤 미래를 선호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로 개념화
- 유럽은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주도로 2014년부터 유럽의회의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추진하도록 권고
- 이에 따라 2015년 53개 시민 대화를 시작으로 해마다 실시되었고, 2019년에는 1200개의 미래대화가 시행, 5년 동안 유럽시민 26만 명이 미래대화에 참여, 140만 명이 이 대화를 지켜보았음(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박성원, 2020에서 재인용)¹⁾
- 싱가포르도 2015~2016년 시민 8,300명이 미래대화에 참여했고, 121개의 논의 주제를 만들어 선호하는 미래 사회를 구상한 바 있음(박성원, 2020)
- 해외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도시와 지역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함(예컨대, Ortegón-Sánchez & Tyler, 2016)
- ’22년에는 강원, 경북, 대전, 전북, 전남,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지역주민 120명을 만나 미래대화를 추진(박성원 외, 2022)
- ’23년에는 부산연구원,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를 추진

1) 유럽에서 추진한 미래대화의 결과는 2020년 발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발발로 연기. 대신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전략적 미래 보고서(Strategic Foresight Report)’를 해마다 발표하면서 유럽시민의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정책을 제시함

연구의 목적

- 시민들이 예측한 다양한 미래의 모습과 바라는 미래를 조사
 -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3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논의
 -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식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에는 시민사회의 희망, 기대, 걱정, 우려의 요인들이 담겨 있음
 - 이런 요인들은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반대로 새로운 미래의 도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이런 요인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사회가 원하는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됨
-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추진하는 '변화창조시민'(change agents)의 양성
 - 미래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 등 3자의 협력으로 만들어지며 이 3각 체계에서 시민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정부와 전문가들이 원하는 미래라도 시민들의 이해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힘들
 - 변화의 창조자이자 추진자로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미래계획이나 비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정례화하는 정책 필요
 - 지역주민들과 미래대화는 시민 개인이 지역사회의 변화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시민과 미래대화를 지역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연결하는 과정의 실험
 - 부산시민과 미래대화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독자적 연구 프레임과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전문가집단인 부산연구원, 지역정부인 부산시청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프로젝트(그림1 참조)
 - 국회미래연구원은 부산연구원 연구진을 대상으로 미래예측의 이론과 방법론, 미래대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에 대해 학습시키고 실습하면서 미래대화 준비
 - 시민과 숙의토론에서 나온 결론을 부산시장에게 보고해 시민들이 걱정하는 미래와 희망하는 미래를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
 - 이를 통해 미래대화가 단순히 시민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주요 정책담당자에게 전달되어 미래를 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줌

<그림 1>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추진과정



2. 미래대화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진행 과정

참여 시민 모집 방법 및 인구학적 특성

○ 참여자 모집 과정

- 부산연구원의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에 참여할 시민 모집
- 10대 청소년을 포함, 총 58명의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힘(소정의 교통비 지급)
- 2023년 3월 18일(토요일) 오후 1~5시까지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구학적 특성(표1 참조)

- 미래대화에 참여한 부산시민은 여성(60.3%)이 남성(39.7%)보다 상회
- 연령대별로는 40대(29.3%)와 30대(20.7%)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중고생을 포함한 10대(19%)와 50대(19%)의 참여율이 다음으로 높았음
- 직업으로는 직장인(50%)이 가장 많았고, 학생(24.1%), 주부(12.1%)와 자영업자(12.1%), 무직(1.7%) 순으로 높았음

<표 1> 부산시민 미래대화 참가자 인구학적 특성(총58명 답변)

성별	연령	직업
여성(35명, 60.3%) 남성(23명, 39.7%)	10대(11명, 19%)	학생(14명, 24.1%) 주부(7명, 12.1%) 직장인(29명, 50%) 자영업자(7명, 12.1%) 무직(1명, 1.7%)
	20대(3명, 5.1%)	
	30대(12명, 20.7%)	
	40대(17명, 29.3%)	
	50대(11명, 19%)	
	60대(4명, 6.9%)	

미래대화 진행 과정

○ 사전 숙의자료 제공 및 미래인식 조사

- 부산의 2050년 미래 가능성과 선호하는 미래 조사를 위해 연구진은 행사 3주 전부터 참석자들에게 사전 숙의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하도록 요청
- 사전숙의자료(부록 참고)에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연구한 미래전망의 주요 결과를 담아 다양한 미래변화의 요인을 설명(박성원 외, 2022)
- 숙의자료를 읽은 참여자들은 4가지 미래상(그림2 참조)을 이해하고 이 중에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부산의 미래'를 선택
- 4가지 미래상은 국내외 미래학계에서 활용하는 예측방법론으로 다가올 미래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임 (Dator, 2002; Park, 2018)
- 사전 조사 자료는 '미래대화' 이후 다시 같은 내용을 조사한 것과 비교해 시민들이 미래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변화가 있었는지 대조하면서 확인

<그림 2> 다가올 4가지 미래의 유형과 주요 요인들

경제의 계속 성장
CONTINUED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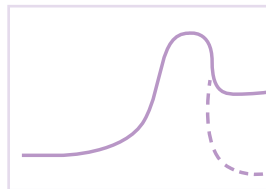
- 인구증가
- 과학기술발달
- 창업증가
- 문화적 역동성

사회의 붕괴
COLLAP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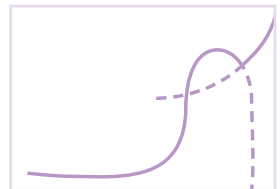
- 경제적 위기
- 자원 고갈
- 환경 재앙
- 전염병 창궐

보존사회의 등장
A CONSERVED SOCIETY



- 기후변화 대응
- 축소균형 추구
- 인간과 자연의 공존
- 미래세대 중심

변형사회의 시작
A TRANSFORMATIONAL SOCIETY



- 급진적 기술 개발
- 우주로 진출
-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 4차산업혁명 이후

* 출처: 박성원, 2019

○ 숙의토론형 미래대화 진행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중장기 미래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 도출(표2 미래대화 프로그램 참조)
- 총 6개 팀으로 참여자를 나누고 각 팀 별 2명씩 부산연구원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자들이 ‘미래대화 촉진자 (facilitator)’로 참여하고 논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
- 촉진자는 미래대화에 필요한 여러 질문을 제기하고 참석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 미래의 변화를 4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그림2), 지역사회가 4가지 미래사회 중 어느 미래로 갈 가능성이 큰지, 어느 미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숙의하면서 토론
- 바람직한 미래(선호미래)로 가려면 필요한 정책과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도 제안

<그림 3> 숙의토론으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를 논의하는 부산시민들



* 사진 출처: 부산연구원

<표 2>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프로그램

일정		내용
13:00~14:00(60분)	준비	회의장 준비 및 참석자 자리 안내, 참석자들과 라포(신뢰, 친밀감) 형성
14:00~14:20(20분)	오프닝	국회미래연구원장, 부산연구원장, 부산시청 인사 및 축사
		미래대화 목적 및 미래 개념 소개
14:20~15:00(40분)	세션1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전망, 인공지능의 발전이나 기후위기까지 다양한 미래변화 요소를 고려함
15:00~15:20(20분)	질의응답	세션1에서 논의한 내용 중 참여자들의 질문에 전문가 그룹의 답변 (전문가는 미래에 관한 정답을 제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시민이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 *전문가 그룹: 미래예측의 역량을 갖추며 미래실현을 위한 정책을 두루 이해하는 그룹
15:20~15:30(10분)	휴식	
15:30~16:20(50분)	세션2	부산시민들이 맞이할 4가지 미래 논의 (부산엑스포, 양자컴퓨팅, 미중 대립, 인구 증감 등 미래의 주요 동인과 그 파급효과까지 토론)
16:20~16:50(30분)	전체토론	4가지 미래 중에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및 '미래세대까지 원하는 선호미래' 투표 및 토론
16:50~17:00(10분)	클로징	질의응답 및 사후설문

○ 사후 조사의 분석

- 미래대화가 끝나고 참여자들은 자신이 예측한 가능미래와 선호미래의 근거를 작성
- 연구진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
- 참여자들이 제시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가능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바람직한 미래(선호미래)'의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 이를 통해 부산시민 참여자들의 미래에 관한 희망, 기대, 걱정, 우려를 파악
- 조사 결과와 분석 보고서는 부산연구원과 부산시청과 공유하고 선호미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미래정책을 논의하고 발굴
- 시민과 미래대화의 성공 요건 중 하나는 미래대화의 내용이 시민들 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고 부산시의 미래 계획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연구기관 및 지역정부와 공유하는 것임
- 이런 과정이 확립되어야 미래대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고,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풀어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음

3.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결과 및 분석

미래대화 이전 참여자들의 미래 선택

-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 참여자들은 사전 속의자료를 읽고 자신의 미래 인식을 밝힘(표3 참조)
 -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에서 사회의 붕괴가 43.8%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를 이어 보존사회의 등장 35%, 변형사회 14.2%, 경제의 계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참여자들은 7%로 가장 낮았음
 -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 변형사회가 51%로 가장 높았음
 - 가능미래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로 선택된 '경제의 계속 성장' 미래가 선호미래 2위(24.5%)로 꼽힌 점은 주목됨
 - 사회의 붕괴 미래를 바라는 시민들은 2명(3.5%)이었고, 이들은 '붕괴'보다는 '붕괴 뒤의 대안적 사회'(예를 들면, 느린 사회의 실현)를 바라는 것으로 추정(미래대화 내용에서 확인)

<표 3> 사전 선택(총 58명 중 57명 답변)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7%(4명)	24.5%(14명)
사회의 붕괴	43.8%(25명)	3.5%(2명)
보존사회 등장	35%(20명)	21%(12명)
변형사회의 시작	14.2%(8명)	51%(29명)

미래대화 이후 참여자들의 미래 선택

-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 시민 참여자들은 미래대화 이후 자신의 미래 인식을 밝힘(표4 참조)
 - ‘이대로 가면 맞이할 부산의 미래’에서 사회의 붕괴가 62%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를 이어 보존사회의 등장이 29%, 변형사회는 9%, 경제의 계속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참여자들은 0%였음
 -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는 보존사회가 46.5%로 가장 높았음
 - 사전 조사에서 선호미래 2위를 차지했던 ‘경제의 계속 성장’ 미래는 선호미래 3위(15.5%)로 한 단계 하락하고, 변형사회가 2위(36.3%)로 선택됨

<표 4> 사후 선택(총 58명이 속의토론하고 결정)

미래유형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	0%(0명)	15.5%(9명)
사회의 붕괴	62%(36명)	1.7%(1명)
보존사회 등장	29%(17명)	46.5%(27명)
변형사회의 시작	9%(5명)	36.3%(21명)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의 결과 차이 분석

- 미래대화 이후 참여자들은 부산의 붕괴 가능성을 **43.8%에서 62%로** 더 높게 예측
 - 사후설문 조사의 결과, 참여자들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일자리 감소와 산업의 쇠퇴, 고령화, 환경파괴 등을 ‘붕괴’ 예측의 근거로 제시(표5 참조)
 - 특히, 참여자들은 인구감소에서 청년층의 부산 이탈을 매우 걱정함
 -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이탈은 부산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강한 근거로 인식
 - 사전조사와 달리 사후조사에서 붕괴의 미래를 가능하다고 **답변을 바꾼 응답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산업쇠퇴’ ‘환경파괴’ ‘바이러스 창궐’ ‘계층과 지역간 갈등’ ‘공무원의 무능력’을 언급
 - 부산의 경제가 지속성장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7%에서 0%로 급락
 - 변형사회의 선호도는 사전조사에서 51%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36.3%로 감소

<표 5> 미래대학 이후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답한 미래별 키워드(괄호 안은 언급빈도)

미래상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의 이유	'실현을 바라는 미래'의 이유
계속 성장	세계적 관광도시(1), 낮은 물가(1)	지속적 성장(3), 외국 투자 증가(1), 청년 증가(2), 발전(1)
붕괴 사회	인구감소/저출산(15), 일자리 감소/산업쇠퇴(11), 고령화(8), 환경파괴(5), 공무원의 무능력(3), 자연재해(2), 지역 격차(2), 바이러스 창궐(2), 계층 갈등(1), 전쟁(1), 청년공간 부족(1), 주거환경 악화(1)	경쟁 감소(1)
보존 사회	지역 성장의 정체 또는 유지(5), 인구 유지(4), 시민협력(2), 자연파괴(2), 탈세계화	지속가능(11), 삶의 질(2), 복지(1), 예술(1), 정신건강(1), 주거환경개선(1), 자연과 조화(1), 관광산업 발전(1), 인간성(1)
변형 사회	새로운 성장동력/기술(2), 탄소중립(1)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혁신(10), 산업전환(2), 4차산업혁명(2), 부산 엑스포(1), 의료도시(1), 해양휴양도시(1), 제도 개선(1), 공동체 강화(1), 흥미(1), 대안(1)

○ 미래대학에서 시민들이 예측한 '붕괴'의 이유들

[인구문제] “부산에서는 젊은이들이 감소하고 노령 인구가 많아 미래에 청년들이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힘들지 않을까, 결국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겠다.”

[일자리 문제] “기술이 발달해서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증가하고, 반면 로봇들이 못하는 그런 일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안 좋은 일자리인데 과연 부모님들은 저희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할지?” “인재는 다 외국이나 서울에서 데려오는데 부산 사람들은 되게 낮은 일자리만 차지할 것 같다.”

[돌봄문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 100세도 사는데 옆에 간병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거환경] “부산의 마린시티 말고 초량이나 인근의 집들은 다 비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범죄 도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살던 분들은 삶의 질이 너무 낮아질 것 같아 걱정.”

[재난] “부산 인근에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가 많다. 여기서 폭발 사고가 나면 부산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당한다. 요새 지진도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환경문제] “10년에서 20년 뒤에 낙동강 물은 현재보다 더 나빠져 있지 않겠나. 거기서 재배하는 벼에도 독소가 있고 그거를 섭취하는 사람의 몸에 축적되면 안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 냉각수도 나오잖아요.”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는데 부산(의 일부 지역)은 20년 뒤라면 침수될 것 같아서.”

[보건문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빈번하게 창궐할 것 같다. 한 번 더 이런 문제가 오면 부산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할 것.”

[국제분쟁]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이미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서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고조되는 이런 세계에서 국제무역이 쇠퇴하면서 부산항만의 기능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더 감소할 것 같다.”

○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2위, '보존사회'의 이유

- 참여자들은 보존사회가 가능한 미래로 인식된 이유로 지역 성장의 정체, 인구 유지, 시민협력 증가, 자연파괴 완화, 탈세계화 등을 거론
- 한 참석자는 “대도시와 지역사회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되어 부산이 과거처럼 성장하지 못하지만, 동남권 인프라가 부산에 집중되어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고 예측

○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선호미래'에서 보존사회를 가장 많이 선택

- 사전조사에서 21%의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사후조사에서 46.5%로 급증
- 사후설문 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삶의 질 향상, 복지와 예술의 도시 구현, 정신건강, 주거환경 개선, 자연과 조화, 관광산업 발전, 인간성 회복 등을 선호미래의 근거로 제시(표5 참조)
- 사전조사와 달리 사후조사에서 보존사회를 선호한다고 **답변을 바꾼 응답자들은** '분배' '문화와 예술' '윤리' '정신건강' '복지' '양적 성장의 지양' '더불어 사는 공동체' 등을 언급
- 미래대화 이후 선호를 보존사회로 변경한 참가자는 그 이유로 “성장사회가 자원 부족과 같은 미래를 마주하면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어 지속적인 미래사회가 좋을 것 같다”고 답변

○ 미래대화에서 언급된 '보존사회' 선호 이유들

[지속가능] “더 성장을 바라는 거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지속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다양한 성장] “인구가 적어지면 사회의 다양성은 더 커진다고 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꼭대기에 서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거기에 너무 많은 힘을 소비해 다른 것을 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경쟁이 완화되면 각자 사회가 필요한, 비어 있는 구석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삶의 질] “저는 더 성장하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는 것도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제) 성장 말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환경보존이나 교육, 분배, 문화예술, 정신건강 등 할 건 많거든요.”

[인간성 회복] “보존사회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책을 읽을 시간도 늘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인문학적인 얘기도 나눌 거고 미래(세대)와 대화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주거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많아질 것 같다. 작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가 형성되면 부산에 청년들도 증가할 것 같다. 이들이 할 일도 많아지고.”

○ 선호미래 2위로 꼽힌 **변형사회(36.3% 응답)**의 주요 이유

-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혁신, 산업전환, 4차산업혁명, 부산 엑스포, 의료도시, 해양휴양도시, 제도 개선, 공동체 강화, 흥미 등이 변형사회를 선호하는 이유로 언급됨

[신기술 혁신] “제가 스마트팜을 구축해 작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농업으로서 먹거리 산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산업전환] “자율주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우리 부산에 했으면 좋겠다. 부산은 산과 강, 바다가 다 있고 해안선도 길어 자율주행을 위한 환경이 훌륭하다.”

[안전] “바다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우주선처럼 떠있는 집을 짓는다든지 새로운 생활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지진이나 쓰나미의 위험에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집.”

[해양휴양도시] “가상 현실에서 일하는 것(재택근무 등)이 정착되면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가 있는 곳이라든지 낙동강 강을 끼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람이 몰릴 것.”

[흥미]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모습 너무 근사하다. 나는 그 미래에 살고 싶다.”

○ 3위 **선호미래, 경제의 계속 성장(15.5% 응답)**의 주요 이유

[발전] “해양도시로서 앞으로 세계엑스포 유치되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새로운 투자] “의료기술이 좋아지면 부산이 실버타운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은퇴하신 분들이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오면 인구가 증가할 것 같다.”

[사업기회]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올 것.”

○ 4위, **붕괴미래(1명)**를 선호하는 이유

[新공동체 형성] “진짜 세상이 망해 살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개개인은 슬픔에 대한 연대가 생긴다.”

부산시민들은 미래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고 싶은가?

○ 사후조사에서 참여자들에게 미래 앞에 붙이면 좋을 단어나 문장을 쓰도록 요청

- 시민들은 ‘함께 잘 살고 행복한’ 미래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그 다음으로 바라는 것으로 조사됨(표6 참조)
-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미래, ‘친환경적’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 ‘인간다운, 인간이 존중되는’ 미래를 바라는 시민들도 다수
- ‘다양성 존중’ ‘건강한’ ‘혁신적’ 미래를 원하거나 ‘시련이 있어도 강한’ 부산의 미래를 원한다는 답변도 주목됨

<표 6> 참여자들이 쓴 미래 앞에 붙여보고 싶은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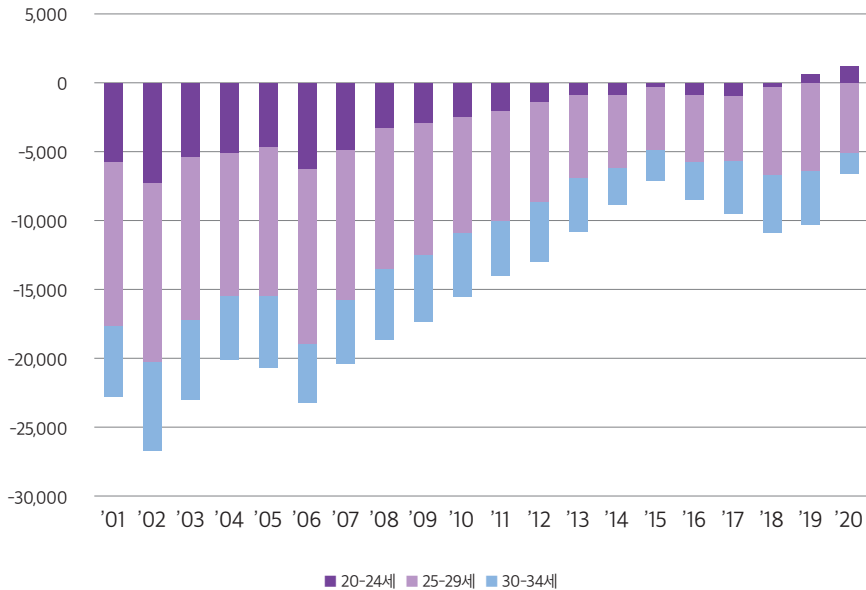
미래 앞에 붙여보고 싶은 단어	언급된 빈도
함께 잘 살고 행복한	10
안전한/평화로운	6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5
친환경적	5
지속가능한	4
인간다운/인간이 존중되는	4
다양성 공존/존중	4
희망	3
건강한	3
첨단/혁신적/과학적	3
가족의 안녕, 학생들이 자유로운, 입가에 미소가 띠는, 미래세대를 위한, 시련이 있어도 강한, 천천히 성장하는, 여유로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

4. 정책적 시사점

‘붕괴사회’의 경고음에 적극적 대응

- 시민 참여자들이 예측한 붕괴의 사회구조적 이유를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대응
 - 전통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로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안감(돌봄 공백 등)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
 - 수질 오염, 핵발전소 사고, 다양한 환경파괴로 발생하는 전염병의 창궐, 기후위기로 비롯되는 해수면 상승 등은 부산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래 사건들임
 -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확고한 미래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시의 회복력과 자연과의 조화, 건강한 시민들의 삶이 지속하는 환경을 창조해야 함
 - 원도심 노후 주택 증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도심의 녹지 공간 부족 등도 미래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요인이며 중장기적 대안 마련 필요
- 가장 우려되는 부산의 청년층 유출을 완화하는 정책 필요
 - 2000년 이후 부산 청년 인구는 지속적 감소(그림4 참조)
 - 25~29세의 순유출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34세 유출이 높음
 - 부산 청년의 수도권 순이동은 연평균 9,000명 수준
 - 경남이나 울산 등 부산 인접 지역으로의 순유출은 심화, 특히 경남 지역으로 순유출
 - 부산 청년들이 부산을 빠져나가는 이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구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에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힘(김경수 외, 2022)
 - 부산연구원 김경수 외(2022)의 연구에서 1) 일자리 및 산업분야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의 일자리 확충” “부산의 산업 자원에 기반을 둔 특화 분야 산업 기반 조성”을, 2) 삶의 질 측면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립” “청소년, 청년, 대학, 공공기관이 연계한 창의적 영화인 양성과정 도입” 등을, 3)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활동 공간 설치에 국비 지원” “공공기관에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재 채용” 제시

<그림 4> 부산 청년인구 연령계층별 순이동(2001~2020)



* 출처: 김경수 외, 2022

‘보존사회’라는 선호미래에 다가가는 정책의 개발

○ 지속가능, 다양한 성장에 주목

- 인구감소가 가장 걱정이지만 지역별로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
- 지역별로 경쟁우위를 따져보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내놓는다면 공동체 연대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
- 미래대화를 상시적으로 정례화해서 개최한다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가나 전문가가 생각지 못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음
- 싱가포르의 시민들과 미래대화를 ‘SG Future’(싱가포르 미래)로 브랜드화 하고,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 추진
- 2015~2016년 미래대화에서 나온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예술위원회, 국가문화유산위원회, 국가청년위원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기금(MCCY’s Our Singapore Fund)을 활용해 추진(박성원, 2020)

- 삶의 질 향상, 인간성 회복 등을 원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사회
 -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매진한 시민들이 이제는 환경보존, 문화예술, 정신건강, 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
 - 시민들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다양한 골목길에서 편하게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이웃과 담소도 나누는 문화를 원함
 - 아파트 위주의 도시보다 작은 주택들이 모인 주거문화가 형성되면 전국의 청년들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유용함
 - 걷고 싶은 도시, 골목길과 마을이 살아 있는 도시, 개성 있는 주민문화와 거리문화가 있는 도시는 탈산업화 시대에 지역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음(모종린, 2022)
 - 이와 관련 부산시는 22년부터 '15분 도시' 정책을 제시, 도보와 자전거로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도시의 필수기능을 누릴 수 있는 미래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음

전국에서 국회 주도의 미래대화 추진

- 국회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국민과 미래대화 시행
 - 국회가 정쟁의 장소만이 아니라 중장기적 미래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국회는 수많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어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미래대화에 나선다면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 현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교환, 공감을 불러일으켜 건설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음
 - 미래의 걱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현장의 관점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미래 기회의 관점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평상시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시민들(청년층)이 목소리를 내며 지역의 비전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에서 한 시민이 말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20년 후에 미국 뉴욕타임스의 1면을 부산이 장식하는 것을 상상했어요. 그 시작은 오늘 시민과 미래대화였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시민과의 미래대화를 늘리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미래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면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주목하지 않을까요?”

5. 결론 및 미래대화 후기

○ 결론

- 미래학이나 미래연구의 경험이 없어도 일반 시민들은 다양하고 균형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바라는 미래사회를 제시할 수 있음
- 이들이 미래대화에 쏟아내는 말들에서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도 있지만 다가올 미래사회의 문제들도 많아 전문가 그룹이나 정책그룹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새로운 성장과 대안 도출에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이며 이를 해결할 경우 시민사회의 연대감이 강해질 수 있음
- 시민과 미래대화를 지역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부산시장과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완결
- 부산연구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 2050 비전에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내용을 참고해서 계획 수립
- 부산과 미래대화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대한민국은 정기적으로 시민들과 전문가, 정부가 만나 새로운 미래, 바람직한 미래를 논의하고 실현하는 사회로 성장할 수 있음

○ 미래대화 촉진자로 참여한 부산연구원 연구진의 후기

- 다수의 시민이 생각하는 현재 부산의 문제점과 선호하는 미래를 확인
- 시민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 미래에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배울 수 있었음
- 부산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생각이 변해갈 수 있음을 확인
- 미래는 막연할 수밖에 없지만 시민과 소통으로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움
- 정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연구자로서의 소명감을 느낌
-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토론 안내, 의견 교환, 즉흥적인 대처 등 행사 진행이 깔끔해서 내부적 불만이 나오지 않았음
- 시민들 간 다양한 의견에 대해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고, 연령, 직업, 거주지역 등 배경마다 다양한 관심사와 문제의식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시민들이 세대 간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어려움이라 느끼는 부분을 서로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태도에 감명 받았고, 청소년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이 좋았음
- 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루에 미래대화를 끝내지 말고, 여러 차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음

부록: 미래대화 속의자료 및 사전질문

※ 「부산시민과 미래대화」에 오시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부산의 미래비전을 세우려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대략 2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추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단기적 성과주의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집중한 결과로 비정규직 비율, 남녀의 임금 격차,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빈곤율이 지속해서 높아졌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이 증가하고 개인 간의 협력보다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감소하고, 1인당 주거 면적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소득 하위계층의 자가주택보유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까지 심해져 소득 하위계층과 소수약자의 주거환경은 여러 위험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 교육

시민들의 주관적 사회이동성 인식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도급 기업의 원사업자 의존도가 심화해 두 기업군의 노동자 임금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임금은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의 50%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창업은 수도권에 주로 집중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대기업 노동자와 지방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거나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 경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 이익을 극대화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의 눈치를 더욱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기계나 인공지능의 사람 대체 경향은 강화하는 등 경제의 내외부 환경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례로 전체 기업 수의 0.5%에 불과한 대기업이 연구개발비는 전체 기업의 연구개발비에서 61.4%를 차지합니다.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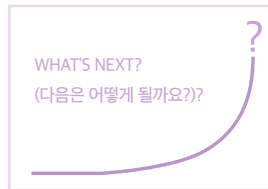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 탓에 집회와 시위, 온라인 의견 제시 등 시민의 직접행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환경보호, 양성평등, 정치와 경제적 의사결정 참여에서 자신의 의견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정부의 효과성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증가 추세입니다.

○국제

경제, 기술, 외교, 규범 등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 일본, 아세안 등 미국과 중국 외에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국가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에서 국력을 키우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아프리카에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문화 교류를 통해 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20년 앞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 5> 과거와 현재를 그린 그림



[그림5]은 과거와 현재를 그린 그림입니다. 인간이 수렵 채집 시절부터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를 거쳐 지금의 사회를 만들면서, 인구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그림5]처럼 19세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제적 생산성도 가파르게 높아졌지요. 자, 그래프의 오른쪽 위 꼭지점이 현재라면 앞으로 어떤 모양을 그리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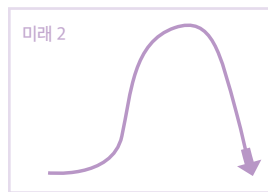
미래학자들은 다음의 4가지 미래 중 하나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6> 미래1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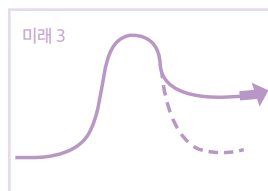
○ 미래1: [그림6]의 미래1을 봐주세요. 이 미래에선 우리 사회가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가정합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정부나 기업은 계속성장의 미래를 원합니다. 계속성장의 미래를 예상하려면 예측의 대상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중심 동인, 예컨대 인구의 지속적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기업활동의 자유, 문화적 역동성 등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이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림 7> 미래2의 모습



○ 미래2: [그림7]의 미래2를 봐주세요. 이 미래는 경제적 위기, 자원 고갈, 환경 재앙, 전쟁, 도덕적 타락, 전염병의 창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사회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이 미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맞이하는 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예측하려면 예측 대상이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존재감을 잃고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라질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이 미래로 가는 것일까요?

<그림 8> 미래3의 모습



○ 미래3: [그림8]의 미래3을 봐주세요. 이 미래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사회가 미래1과 미래2 사이에 놓이거나, 놓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붕괴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과거의 경제개발 방식이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경제적 양극화를 확대해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1970년대 로마클럽에서 내놓은 ‘성장의 한계’, 2015년 파리의 기후협약 등은 이 미래를 향한 전 지구적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 미래로 가는 것일까요?

참고문헌

김경수 외. (2022).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 방안. 부산연구원.

모종린. (2022). 탈산업화 시대의 상권 기반 지역발전: 마용성 모델. 국회미래연구원 발제자료

박성원. (2019). 미래공부. 글항아리

박성원. (2020).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호.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외. (2022).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Dator, J. (Ed.). (2002). Advancing Futures: Futur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Connecticut & London: Praeger.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2019). From Local to European: Putting Citizens at the Centre of the EU agenda.

Ortegon-Sanchez, A. & Tyler, N. (2016). Constructing a Vision for an 'Ideal' Future City: a conceptual model for Transformative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Research Procedia 13: 6-17.

Park, S. (2018). A possible metric for assessing self-efficacy toward postulated futures. Foresight 20(1): 50-67.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08.14.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박성원	75
2023.08.07.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74
2023.07.31.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정혜윤	73
2023.07.24.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72
2023.06.26.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71
2023.06.05.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70
2023.05.22.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69
2023.05.15.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68
2023.05.01.	만들어진 당원 :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정순영·김승미	67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청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 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부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